

【P2-14】

유방암과 영양소 섭취 상태와의 관계

김은정, 최봉순, 이희자*, 이충원*

대구가톨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유방암 발병률이 생활방식이 서구화되고 영양상태가 좋아지면서 최근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유방암 유발 요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과도한 영양, 지방섭취, 비만, 등이 식이 요인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에 대한 국내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유방암 환자의 식이요인 및 혈액성상을 조사하여 우리나라 여성의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는 식이 섭취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수행된 연구 중 영양소 섭취상태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은 2002년 10월 2일부터 2003년 6월까지 Y대학병원 유방센터에서 처음으로 유방암진단을 받은 입원 여성환자 100명과 건강한 여자 성인 100명을 대상으로 식품 및 1일간의 영양소 섭취상태를 환자와 면담하여 조사하였다. 한국인 영양권장량과 식품성분표의 자료를 이용하여 영양소섭취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였으며 영양소섭취량을 산출한 후 영양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대조군이 45.82세, 환자군이 46.84세였고, 폐경이 된 경우가 52명(26%) 폐경전 여성이 148명(74%) 이었다. 열량 및 영양소 섭취량의 권장량 백분율은 폐경전 여성에서 양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난 것은 에너지, 단백질, 비타민 B₁, B₂, B₆, 나이아신, 칼슘, 인, 아연이었으며, 환자군의 섭취량이 낮게 나타났다. 폐경후 여성에서는 에너지 섭취량은 환자군이 대조군 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권장량 백분율이 가장 낮은 영양소는 양군 모두 아연이었고, 칼슘과 열량도 낮은 편이었다. 13개 영양소의 평균영양소적정섭취비율(MAR)을 조사 비교한 결과, 전체여성에서 환자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영양밀도지수(INQ)가 1 이하인 영양소는 아연이었다. 전체여성과 폐경전여성에서 단백질, 비타민B₁, B₂, 인의 영양밀도지수가 환자군이 대조군 보다 더 낮았다. 최저섭취군(1/4분위수 섭취군 이하 최저섭취 군으로 표기)을 기준으로 유방암과 유의적인 관련이 있는 영양소는 폐경전 여성에서 열량, 단백질, 조섬유, 칼슘, 인, 칼륨, 비타민A, 레티놀, 비타민B₂, 엽산, 단일불포화지방산, 다불포화지방산이었다. 특히 폐경전여성에서 이들 영양소의 적절한 섭취가 유방암의 보호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이 시사되지만 이와 관련된 식이 요인은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